

## 제 1부 - 한국 바이오산업의 추진현황과 미래

### 한국 바이오산업 정책

박청원, 산업자원부 생물화학산업과장

산업자원부는 바이오산업을 Post-IT시대의 국민경제 성장엔진으로 육성하여 2015년 생산 60조원, 수출 250억불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는 산업화 가능한 핵심기술 선점, 선진수준의 인프라구축,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 바이오 지원제도의 정비를 통한 최적 기업환경의 조성이다.

산업화 가능한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세부정책과제는 RoadMap에 입각한 핵심기반기술에 집중투자,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융합신기술의 선제적 개발, 바이오스타 창출형 R&D 프로젝트의 추진, 바이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바이오장비 산업의 육성이다. 선진수준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세부정책과제는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바이오클러스터의 육성, 창의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양성, 산학연 공동 활용을 위한 생산·평가 및 시험기반의 확충이다. 글로벌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세부정책 과제는 첨단의료복합센터의 육성으로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대응, 투자 유치·제휴협력 활성화로 선진기업 학습효과 극대화, 국제적인 바이오분업과 파트너쉽 형성에 적극 참여이다. 최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정책 과제는 바이오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민간의 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견인할 지원수단 강구, 바이오산업 참여자의 혁신역량 제고와 상생 협력의 활성화이다.

\*박청원 : Tel. 02-2110-5663, e-mail : cwpark@mocie.go.kr

### 지역산업기술지도를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이경미

단장, (재)충북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지역산업기술지도(Regional Technology Roadmap)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관련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중심으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되어, 미래 전략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산업 분야는 16개 시도 중 12개 곳이 전략산업 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지역의 한정된 자원과 혁신역량의 최적분배 및 적시활용을 설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지역산업기술지도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경우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와 각종 혁신기반 구축 등에 관련된 중앙정부 사업들에 적극 활용하여 현재 2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지역별 전략산업 평가 결과 12개 시도 중 유일하게 A등급 사업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충북전략산업기획단의 CID(Chungbuk Industry Development) CONNECT라는 네트워크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기술지도의 확산을 통하여 산·학·연·관의 목표 및 전략의 공유를 하여 지역 또는 국가적 수요를 만족시켜 줄 기술들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기술개발의 계획 및 조정에 대한 기본방향과 육성의 체계도를 제시하는 노력의 일부가 반영되었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작성한 지역산업기술지도가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지원에 공식적으로 활용되므로, 지역에서 급속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IT, BT 등 첨단기술산업의 조화로운 육성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주저자: Tel. 043-237-9431, e-mail: komoli@cbtp.or.kr